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1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삶은 계란 (Life is Egg)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3일(수요일)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190000 | 이름 | 안00 | 학번 | 2020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20230000 | 이름 | 강00 | 학번 | 2023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 이름 |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힘만 조금 뺏을 뿐인데</p> <p>1. 책 소감문 공유하기</p>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안○○</div> <div style="width: 90%;"> <p>저자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 질문한다. 우리가 '진짜' 욕망하던 것들은 사실, 타인의 욕망에 의해 생겨난 것을 책에서 밝히고 있다. 책에서는 압사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포화 상태인지,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p> <p>맵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요즘 생각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떠올랐다. 미디어 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지속,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깐 멋있어서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한 공부는 어느샌가 진심이 되어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올랐다. 타인의 기준에서 보면 '4학년은 지금쯤 인턴을 하거나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야 하는데'라는 그 궤도에서 튕겨져 나갔다는 생각만으로 아득해지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p> <p>내가 이 생각을 털어내고 모든지 준비를 하나씩,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은 내 삶의 시간을 다시 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자가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 했던 것처럼, 타인의 궤도에 맞춰 걸던 내가 나의 궤도를 다시 그려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없이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늦게라도 나의 일과 꿈을</p> </div> </div> | | | | | | | |

| | |
|-----|---|
| | <p>다시 생각하게 되었다.</p> <p>저자가 얘기한 맵핑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궤도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것.' 그리고 사유하는 것. 힘을 조금 빼고 나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p> <p>특히나 '힘만 조금 뺐을 뿐인데'는 잔뜩 힘이 들어간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했지만, '힘을 빼야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다. 비좁게 보이던 시각에 이완을 주어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 힘을 조금 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휴식을 준다는 것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준 책이었다.</p> |
| 강○○ | <p>나는 이 책이 현대인들의 재활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가는 습성이 있다. 미래만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소모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p> <p>인상깊었던 부분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폭력의 정당화다. 작가는 자신이 어린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반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말한다. '애정이 있어서 때린다'는 변명.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닌, 나 자신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위로이자 변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궤변을 남들이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비겁한 일이다. 나 역시 -작가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없으나- 비겁한 변명으로 내게 닥친 일들을 외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곧 강압이고 강요다. 나는 우리 사회에 규칙과 불문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곱씹게 되었다. 모든 관계는 애정만으로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무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간극에 대하여, 확인과 조율이 중요한 세상같다. 그러한 관계의 조정은 먼저 내게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p> <p>다만, 해당 책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결론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본의 방식에 대한 긍정으로 귀결시키는 대목이 많다. 편향된 국수주의다. 따라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볍게 쳐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p> |
| 김○○ | <p>책에서는 현대인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소한 것의 행복에 대해 중요성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나는 적절히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면서 너무 풀어져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큰 목표를 계속 만들며 좇아</p> |

| | |
|--|---|
| | <p>가는 삶도 안좋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 내면에서 원하는 가치를 절충하는 자세, 그리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p> <p>그리고 이기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이기심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고 해석하였다. 즉,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것은 자아가 축소된 것이며 이기심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또한 현대인들이 앞에 있는 욕망만 쫓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돌보는 것이다.</p> <p>또한 내가 다른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일지라도,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hr/> <p>저자의 말에서 크게 와닿은 것도 많았고,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망가집니다(18p)' 부분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강하지만, 약합니다. 노력할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 지칩니다. 미리 당겨쓴 에너지는 훗날 반드시 갚아야 할 때가 옵니다.(19p)'를 읽으며 번아웃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내가 요즘에 건강 문제로 축 쳐져 있었는데, 내가 내 몸을 소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는 게 끝없다고 느껴졌었는데, 저자의 말처럼 이 목표가 끝이 없으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능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쉬는 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p> <p>또한 인간관계 중 트러블에 다룬 부분에서, 내 인간관계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타인의 도움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참고 지내는 등의 방법만 택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나에게 '불쾌한 인간관계를 견디는 것은 인간이 받는 정신적 타격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30p)'라고 조언하였다. 이 책을 통해 참고 지내기보다는 불쾌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야기 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p> <p>(+노연) 작가는 참는 걸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였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오기 마련이다. 내 미래를 위해서 참는 연습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다.</p> <p>(+강○○) 참는다는 상황은 '부장-부하' 등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친구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둘 다 다른 영역이므로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p> |
|--|---|

김○○

2. 우리는 어떤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계절별로 나누어서 생각해봤을 때, 행복한 요소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욕망이 충족되는 선을 낮게 설정해두면, 쉽게 '아, 행복하구나'하는 기분이 찾아옵니다. (힘만 조금 뺏을 뿐인데, 16p)

| | |
|-----|--|
| 김○○ | <p>나는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계절별 먹거리를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봄에는 나물을 먹고, 여름에는 사촌들과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었던 기억이 나에게 좋게 남아있다. 가을에는 추석음식을, 겨울에는 집가는 길에 발견한 붕어빵집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 외에도 작년 가을에 교수님과 함께 등산을 했을 때의 기억이 난다. 평소에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교 대회에 참여하지 못해 침울해하던 나에게 교수님께서 등산을 제안하셔서 학우들을 모아 다같이 다녀왔다. 가을바람과 가을풍경,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덕에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왔다. 가을철 등산이 자연을 구경하는 맛이 있고, 함께 오른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p> |
| 김○○ | <p>봄의 경우 봄내음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따스한 냄새도 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여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쌓았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개수대에서 물총싸움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 외에도 여름에 비를 맞음으로서 얻는 해방감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 눈 발자국 남기기는 것이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다.</p> |
| 강○○ | <p>사계절 모두 일어나는 일이지만, 문득 기분이 안 좋아지는 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여름에 그러한 감정 해소를 잘하는 편이다. 우리 집은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까닭에 여름에 굉장히 더운 편이다. 본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여름에는 잠을 자던 중 더워서 깨는 일이 잦다. 그럴 때 비가 내리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가 공원을 뛰어다녔다. 잠에서 깨면 언제나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 없이 한적하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쓰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뛰어다닐 수 있다. 중학생 때부터 여름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일이다. 어떠한 해방감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p> |
| 안○○ | <p>봄에는 푸릇푸릇한 풍경을 바라보는 게 좋다. 공원만 나가더라도 펼쳐지는 봄의 풍경이 설렌다. 여름에는 축제를 즐기고 콩국수, 열무말이국수 등의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은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행복이 정해져있다. 따뜻한 카푸치노를 들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재즈를 들으며, 공원에 앉아서 책 읽는 것이 나의 큰 행복 중 하나이다. 겨울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있다. 눈 내리는 날에 벽난로가 있고, 흔들의자가 있는 곳에 가서 따뜻한 겨울을 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p> |

3. 우리는 어떤 순간에 번아웃을 경험할까요? 책에서는 번아웃에 대해 ‘불충족감에 고민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번아웃이 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 공유해주세요.

끊임없는 불충족감에 고민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가진 지적 혹은 신체적 한계를 알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잘 배분하는 법 또한 배워두어야 합니다. (힘만 조금 뺏을 뿐인데, 17p)

| | |
|-----|--|
| 김○○ | <p>학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일이 몰리는 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풀어야 하는데,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생긴 번아웃은 해결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먹는 걸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몸이 안좋을 때마다 양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음식을 먹고 집에서 쉬면 몸이 낫는다. 요즘에는 농구 등 운동을 통해 번아웃을 대비하는 편이다. 나의 번아웃은 일이 몰렸을 때 나를 소모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p> |
| 김○○ | <p>중간고사 막바지 즈음에 맥이 풀려서 아무곳도 나가기 싫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누워서 단어를 보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p> |
| 강○○ | <p>우울감이나 피로가 쌓일 때 누구에게 말하거나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걸 어려워 한다. 내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날 것으로 드러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그런 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달리기이다. 이러면 '행복한 고구마 상태'가 된다. 몸이 딱딱딱 굳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p> <p>또한,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개복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스스로의 약함을 인지하는 것이다. 나는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며 때때로 예민하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극심한 마감 압박에 시달린다. 따라서 상황과 스케줄 자체를 평소에 조절하며 산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쉬는 날을 반드시 마련해둔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p> |
| 안○○ | <p>1학년 말 즈음 번아웃이 왔었다. 그때, 번아웃에 벗어나야지 하는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매몰된 사고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다니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피아노 등 몰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 나는 피아노와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의 활력을 주는 요소라고 느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p> <p>토의를 하면서 북클럽에 함께하는 친구들의 삶에 여유가 부족해</p> |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결국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지속시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의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4.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책에서는 프레임워크를 비판하며,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적 사고와 연관지어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개성'으로 여기는 대부분이 특정 공동체 안에서 체질적으로 형성되어 버린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나는 어떤 프레임워크에 갇혀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만들어나가는 지점부터 반성적 사고의 흐름은 시작됩니다. (힘만 조금 뺏을 뿐인데, 110p)

안○○ '고등학교 졸업 - 취직 - 결혼 - 내집마련 - 자식' 과 같은 이 루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나 또한 이 루트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워라밸), 타인이 정해놓은 직업에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프레임에서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니까, 그것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되었다.

김○○ 세상에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 인생은 그게 아니라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된 것 같다. 정해진 길이 없으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나아갈지 고민이 많아진다.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찾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나만의 인생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강○○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같이 노는 친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걸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고 싶어졌다. 친구에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곧 다른 사람과 편하게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김○○ 나는 지역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다. 그래서 1년 다니고 아니다 싶으면 재수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한림대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봤는데, 오래 서울에서 지냈던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서울에 살면 서울 대학에 가야지."라고 자주 말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나의 편견이 고등

| | |
|---------------|--|
| | <p>학교 입시 체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여담으로, 현재는 춘천이란 지역 생활에 무척 만족하고 있다. 춘천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나의 편견을 마주하고,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살 수 있다면 춘천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p> |
| <p>활동 소감문</p> | <p>김○○ 내가 '힘만 조금 뺏을 뿐인데'를 읽은 뒤, 본 활동에서 가장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 '변아웃'이었다. 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긴장 상태로 학교에 다녔다. 무언가 항상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불안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의 설 틈 없는 한 학기의 끝에는 늘 변아웃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학기에 또 그 고통을 겪을까 봐 두려웠지만, 이 책을 읽고, 힘을 조금이라도 빼는 연습을 해본다면 변아웃도 조금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활동에서 변아웃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행복과 변아웃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 각자의 행복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떤 순간이 우리를 더 살어나게 하는지 곱씹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활동을 통해 나에게서 어떠한 시간(아마도 여유)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다.</p> <p>김○○ 가지는 것에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전형적인 예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 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더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는 경우이다. 즉, 이상적인 나 자신을 그려놓고 그것을 미래로 설정해둔 뒤 현실의 내가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각인시키는 것이다. 책에 쓰여진 그러한 망가짐의 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를 지나 지금에서야 나아졌다. 나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청사지라는 것이 정작 이상과 낙천으로 점철되어 구체적이지 못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말의 노력으로도 겨우겨우 좁혀졌던 이상과 현실과의 거리는 내가 고등학교를 올라오며 완전히 벌어져버렸다. 이상은 저 높이 있었지만 노력은 무모했고, 주변의 무관심,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성공을 학습한지 오래인 모대학생에게 과외를 받으며 스스로의 성질에 못 이겨 그만두고 그렇게 3년을 방황했다. 애초에 남들보다 예민하고 유약한 마음과 체력을 타고나 인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쉽게 달을 수 없는 이상을 그렸던 것이 문제였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인간은 거</p> |

| | |
|-----|--|
| | <p>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은 생각만큼 무한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가능성을 너무 믿은 나머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의 의견을 이제는 어렵פות이 납득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끊임없는 불충족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작 자신의 앞에 있는 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가지 못했던 과거를 몇 번이고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 경험을 통하여 추측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점차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릇의 크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싹일 때 비바람을 맞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는지 시험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 이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크게 키우려면 사랑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극진히 보살피고 키워냈을 때 비로소 ‘시련에 견딜’ 정도의 단단함도 가지게 됩니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말이다. 매일 시험치르듯 뻑뻑하게 나 자신을 시험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닌, 내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나에게 던져지면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보는 것. 다 못하면 또 다음, 그리고 다음 과제가 있으니 천천히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 격려하는 것. 이 책의 제목처럼 적당히 힘을 빼고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p> |
| 강○○ | <p>우리는 '제대로 쉬는 법'과 '제대로 노는 법'까지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쉬고 노는 것에 정해진 공식이 있을까. '제대로'라는 강박에 우리는 우리를 매시간 소모시키면서 살아간다. 일 뿐만이 아니라 놀고 쉬는 일에 대한 것까지 기준을 높게 잡는다. 그러나 순간이라도 편안하고, 순간이라도 즐거웠다면, 나는 잘 쉬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고민하게 된다. 그 이후 우리가 느끼는 허무감은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충족의 문제일까?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내게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간 생각해왔지만, 그러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다른 이와 소통이 필요했다. 우리는 홀로 무언가를 습득하지 않는다. 타인의 경험과 소통과 조언으로 성장한다. 에너지를 쓰는 것이 싫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배척했던 과거에 대해 곱씹게 된다. 동시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공식을 생각한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방법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그대로 수용하고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안에 쌓아가면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인가. 일단은 그</p> |

| | | |
|--|-----|--|
| | | 시작을 북클럽으로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의 진솔한 감상과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것 같다. |
| | 안○○ | <p>우리가 결국 힘을 빼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노연이가 얘기했던 '행복의 지속성'이 계속 생각난다. 어떤 친구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이 놀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은 잠깐 빛났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노연이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계속 지속되기도 어렵고, 찾아내기에도 어려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우리가 결국 힘을 주는 이유도, 힘을 빼는 이유도 이러한 '행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쾌활하게 보내고 싶지만, 사회가 규정해 둔 규율 내지는 세상의 '지혜'라 포장해둔 궤변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도 부족해지고, 행복을 꼭꼭 씹어삼킬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졌다고 느꼈다.</p> <p>우리가 힘을 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에 대한 여유를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에 대해 여유롭고 관용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존재에 감사하며 동시에 내가 나를 아껴주며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의 필요성을 이번 활동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p> |

| | | | |
|--|-----------|---------------|---|
| <p>실천 및 실천 소감문 (책 연계 활동: 힘을 조금 빼고 살기 위한 나만의 실천 진행해보기)</p>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 | 김○○ | 스트레스 조절 일지 적기 | <p>힘을 조금 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조절 일지를 통해 스트레스받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스트레스받는 것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생각보다 작은 일들에 내가 많은 마음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면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내 감정을 회피하기 바빠서, 스트레스가 더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스트레스받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덜 힘들도록 하겠다.</p> |
| | 김○○ | 감정일기 적기 | <p>내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겪는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 어깨에 너무 힘이 들 어간 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p> |

| | | |
|--|---------------|---|
| | | <p>그래서 3월부터 4월 말까지는 처음 해보는 과제 하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 시험 공부하라 내 감정을 돌아볼 일이 정말 한두번 있을까 말까였다. 그래서 5월 초가 되었을 때, 감정일기를 적는 것을 북클럽 활동의 실천으로 정했다. 1주일 동안 매일 감정일기를 쓰며 얻은 것은 기록을 하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안정감이다. 내가 이 때 이런 감정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록하는 순간 털어놓는 감정은 마음의 진정을 불러온다. 비록 1주일 동안 실천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되도록 자주 감정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 강○○ 소확행 감상 적기 | <p>새학기라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점점 낡고 지쳐가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 혼자 오랜만에 뮤지컬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광염소나타>라는 뮤지컬을 봤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돈과 감정을 소모하며 만든 여가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마주한 뮤지컬은 여전히 내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일상에서는 겪기 어려운 자극과 흥분, 즐거움을 얻는 것이 나의 침인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감상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도 좋아하지만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도 생각 외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p> |
| | 안○○ 기분일기 적기 | <p>스스로 감정에 솔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이번 활동을 통해 꾸준히 나의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 순간을 함께 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p> |

| | | |
|--|--|--|
| | | <p>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의 마음을 소중히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이러한 감사 표현과 더불어 행복하고 예쁜 마음을 더 많이 전달하며 살아야겠다는 성찰을 했던 계기가 되었다.</p> |
| | | |

2023년 5월 3일

참가자대표: 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2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삶은 계란 (Life is Egg)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요일)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190000 | 이름 | 안00 | 학번 | 2020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20230000 | 이름 | 강00 | 학번 | 2023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 이름 |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진행 도서]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 | | | | | | |
| | <p>1. 책 소감문 공유하기</p>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div> <div style="width: 85%;"> <p>요조 작가님의 일상을 읽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때로는 아련하기도 한 감정을 느꼈다. 뮤지션이자 작가인 요조님의 삶의 기록은 나의 일상과 견주어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대동소이한 감정이었기 때문일까?</p> <p>북클럽을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도전과 부딪히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용기를 공유하기 위해 호기롭게 고른 이 책의 책머리에는 이런 글이 등장한다.</p> <p><i>"책의 제목은 한 시에서 왔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꼭 우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마음은 강아지처럼 되어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시를 향해 마구 달려나가는 기분을 느낀다.(중략) (시의 전문은 책을 조금만 읽다보면 능률하게 등장할 것이다)."</i></p> <p>작가님의 글에서 웬지모를 몽클함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섬세한 문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책을 펼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의 설렘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일상을 담았을까? 작가님 만의 어떤 느긋한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그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책의 마지막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종종 힘이 들고 지칠 때, 이 책을 펼쳐보는 용기 하나가 삶을 살아가는 조용한 응원이 될 것 같다.</p>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강○○</div> <div style="width: 85%;"> <p>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고흐를 부러워 했지만, 나는 작가도 고흐만큼 자신에게서 비롯한 것들을 사랑한다고 느꼈다. 슬퍼하는 나 자신의 모습까지 좋아할 수가 있다니, 내게는 어려운 일이다. 예술가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까? 한때 예술가를 꿈꾸었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탈피한 사람으로서 나는 작</p> </div> </div> | | | | | | | |

| | |
|-----|--|
| | <p>가의 태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신기했다.</p> <p>또한 '성공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실패를 사랑한다'는 기억에 남았다. 나는 이 문장을 보며 '모든 실패한 사람은 그 전까지는 성공했던 사람이므로.(이영도, 피를 마시는 새)'라는 문장과 '살아있는 것만이 죽을 수 있다.'는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언제나 나의 실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 내게 실패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경한 관점이었다. 실패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의 실패를 사랑하고 싶어졌다.</p> |
| 김○○ | <p>이 책의 초입을 읽고 있을 즈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20대 초반, 고흐에 이입해 예술가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한다는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같이, 누군가는 흑역사로 여길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은 작가에 어쩐지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어느새 불편함은 수그러들었다. 작가는 누구보다 자기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객관적이라는 뜻이 아닌,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올곧음. 나는 그런 작가가 어쩐지 부러웠다. 적어도 현재의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작가 주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실 책에 누가 소개되었는지는 나에게 크게 상관이 되지 않았다. 책의 전반에 걸쳐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작가의 서술 방식과 분위기였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암묵적인 자아관(겸손,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된 자아는 그대로 문체에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일까, 이 책을 읽고 다같이 이야기 나누며 학문적 글에서는 비교적 얻기 어려운 비실증적인 가치에 대해 고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간만에 마음 깊숙이 위로를 받은 책이었다.</p> |
| 김○○ | <p>내가 예술 분야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라, 사실 작가의 세계가 잘 와닿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작가가 자기 삶과 자신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보며, 나도 한번쯤은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요조라는 이름의 유래가 내가 힘들었던 시절에 인상 깊게 읽은 책에서 따온 이름이기에, 반가우면서도 요조님이 나와는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때의 시절에 요조라는 인물을 보며 들었던 생각과, 현재의 내가 드는 생각이 달라서인 것 같다. 나는 어찌면 '요조'를 좋아하던 그때의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가님은 과거의 시간도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같아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질투가 났다. 내가 나를 예술과 먼 사람이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6년간 피아노를 배우고 합창도 3년 정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하면서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막연한 감정이 들었던 거 같다. 그래서 실패를 사랑할 줄 아는 자세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은 배우고 싶어졌다.</p> |

2. 우리에게 '겁'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겁을 어떻게 극복해왔을까요?

루시는 여전히 겁이 나. 그러나 겁이 난다는 사실은 하나도 겁 안 나. 루시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나. 그 마음으로 오늘 노래해볼게.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20p)

| | |
|-----|--|
| 김○○ | <p>번아웃을 겪으며 내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는, '마음 근육'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 몸이 갈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생겨난 겁에 의해, 나는 일이 너무 몰리면 가끔은 쉬기도 하고, '소진'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더 노력했던 것 같다.</p> <p>다른 겁 혹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름'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벅차오르게 되는데, 내가 타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에 대한 겁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다.</p> |
| 김○○ | <p>겁은 나 자신에게 갇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루시는 그런 점에서 어린왕자의 술주정 아저씨 같기도 하다. 이렇게 연속된 겁들은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며 동시에 절망스러운 감정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굴레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우울에 잠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나는 이 겁을 해소하기 위해 역지로 그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다. 감정에 침식되면 안된다며 스스로를 억누르며 지내왔다.</p> |
| 강○○ | <p>'처음',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완전히 뒤바뀔 때 그러한 걱정이 더욱 커진다. 내가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일이 잦았다.</p> <p>나는 이러한 불안에 돌진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해서, 오히려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아예 감정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하는 순간에는 불확실함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의 '겁남'을 극복해오지 않았나 싶다.</p> |
| 안○○ | <p>나의 경우, '나의 미래가 하나도 그려지지 않을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겁이 난다. 예전에는 내가 정하고 그려놓은 궤도에 올라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점점 그 궤도를 벗어나는 기분이 들수록, 특히 내 앞에 벌어질 모든 일들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흐려지다 못해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바뀌어버렸다.</p> |

그런데, 요조 작가님의 이 말이 나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켰다. "루시는 지금 아주 용감하게 겁이 나." 누구보다도 아주 겁나는 나를 토닥여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나라는 것. 용감하게 겁나는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것. 나의 주저와 고민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혹은 사회가 규정한 시각들에 의해 가뉘야만 했던 내 삶들을 다시 하나씩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다 보니, 잘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힘들고 실패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용감하게 겁낼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내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3.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타임을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김완이나 고승욱 같은 사람은 모르는 채로 가까이 다가간다. 복잡한 아픔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어이 알아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손을 내민다.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과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 세계는 이렇게도 나뉜다.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69p)

김○○ 나는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타인에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SNS에 썼던 글이 있다. '이 사람을 알고 싶어 다가가는 과정에서 겪는 나의 상처가 있다.' 타인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 삶이 끌려다니거나 짊여나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입장이지만, 겉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모른다고 도망치기보다는, 스스로 상대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입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입한다고 해도 완전히 경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강○○ 항상 원래있던 그 자리에 있다. 상대를 이해한다기 보다는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
내 주변 친구의 상황은 내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적이 많았다. 대신 친구가 그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따로 숙소를 잡아서 하루를 지내거나 친구가 다른 데에 털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그당시 나의 최선이었다.
그러나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내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듣고 있어야만 한다는 무력감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내가 없으면 이 친구의

| | |
|--|--|
| | <p>이야기는 누가 들어주지? 친구에게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털어놓는 건데, 내가 도망치면 의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는 거지?'하는 마음도 들었다. 친구는 자기 나름의 인간관계를 쌓고 있고 평소에는 잘 지내고 있음에도 내가 친구의 이야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감정이 들 때면 죄악감도 함께 일어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았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내게 다가왔을 때는 맞받아치진 못해도 받아주려는 편이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를 알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경청 아닐까 싶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산책이나 먹을 것을 먹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구와 함께하면서 말이다.</p> <p>나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나의 아픔을 돌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돌아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그렇게 다가가더라도 결론이 항상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기에 가까웠던 것 같다. 나는 내가 겪었던 아픔과 분노에 치중해서 사이비 친구를 사귀었던 일화를 억울한 말투로 풀어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의 내가 그 아이와 나누었던 말들과 생각들을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풀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사실,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야 했던 건 진짜 내가 아니었을까?</p> <p>누군가의 삶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진짜 이해일까? 생각해보니 나는 나의 인생과 말들을 꼭꼭 눌러 담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던가? 다가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겁나는 용기와 마주하며 나의 삶의 파편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이 아닐까.</p> <p>4. 내 인생의 좌우명은?</p> <p><i>나는 그 틈에 조용히 서서 여기까지 올라온 태도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모든 걸 이렇게 하자. 책방도 음악도 글도, 내 나머지 인생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하자. 부드럽게, 허벅지가 터지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눈을 오랫동안 꼭 감았다.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106p)</i></p> <p>김○○ “변화의 시작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 중고등학생 시절,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며 탈선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다. 문득, 이런 모습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른다는 말도 잘 안하며 살아갔지만, 지금은 교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건강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나(상태)</p> |
|--|--|

| | |
|--|--|
| | <p>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다.</p> <p>김○○ “인생이라는 무한한 책장에 끝없이 책을 채워가는 것.” 인생이란 숙명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버린 이상 나의 생은 나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김김○○’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시는 안 올 찰나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다. 텅 비었던 나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처럼 말이다.</p> <hr/> <p>강○○ “그러나 어떠한 짐승도 가만히 엎드려 재앙을 기다리지 않는다”(신철규, 단종) 내게 닥친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저항을 동경한다. 밀려오는 상황에 그저 휩쓸리는 것이 아닌, 나의 주관과 가치관, 신념을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p> <p>“안일함은 사회악이다.”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말이다. 사람들은 무지가 죄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외면하거나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나씩 간과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일종의 나비효과다. 그리고 그러한 나비효과의 여파는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려 들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안일함은 사회악이다."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 문장을 되새기면서 나 또한 안일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종의 동기부여 문장이다.</p> <hr/> <p>안○○ 원래 나의 좌우명은 ‘소비의 주체를 넘어 생산의 주체가 되자’는 것이 모토였다. 이런 생각으로 실 틈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은 뿌듯함과 동시에 허망한 생각들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렇다 할 추억도 부족했고, 용기도 부족했다. 여전히 이 굴레에서 나는 ‘소비의 주체’였다.</p> <p>최근에 친구가 나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 "너는 정말 여유로워 보여."라고 말이다. 나는 태생이 꼬여있는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 역시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여유'라는 정의가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그런걸까. 괜스레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그 친구의 말을 곱씹어보니 친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학을 하고 더 큰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해보니, 나는 요조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허벅지가 터지지 않게.”가 현재 내 삶의 속도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멀게만 느껴지는 목적지를 향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을 때 '중간 중간 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나와 함께 해주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 내 삶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p> |
|--|--|

| | |
|---------------|--|
| | <p>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만,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한 약속을 잡지 않고 오로지 쉬는 날을 만들기로 나와 약속했다.</p> <p>작가님의 말처럼, 아득해보이는 목적지가 있을지언정 나는 나의 속도에 맞춰 부드럽게, 허벅지가 터지지 않게 달려볼 예정이다.</p> |
| <p>활동 소감문</p> | <p>김○○</p> <p>활동을 하며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다. 단순히 작가가 예술가라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고, 본 활동에 들어왔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속에서도 내가 배워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우들이 나눠준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나를 늘 모른다는 말로 다가가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작가님 책을 읽을 때는 모른다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이었다.</p> |
| | <p>김○○</p> <p>대부분 추상적인 문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안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까.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답을 틀려도 된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너의 오류들에 주목하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건넸던 이 책의 수많은 문장들 중 이 문장이 최근 들어 다시 생각난다. 북클럽 활동 중 몇 번 털어놓은 것은 나는 모든 것에 정해진 답이 존재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고, 그저 각자 나름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은 안다. 그러니 나만의 길, 나만의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나 자신의 결핍, 결점들을 심하게 부끄러워하고 혐오할 필요도 없겠다. 그 오류들을 마주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의 길은 한층 선명해질 테니까. 그것이 성장이니까.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울림을 주는 문장을 머금은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p> |
| | <p>강○○</p> <p>내가 외면하는 타인의 아픔은 무엇일까. 나는 모른다는 말로 도망치지는 않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알아가기에는 이해력과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 같다. 언제나 남의 말을 경청하지만 그건 결국 상대에 대한 방기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돌이켜 보게 되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에게 타인인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닌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는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p> |
| | <p>안○○</p> <p>이번 북클럽에서는 문학 감수성이 낭낭한 요조 작가님의 글을 읽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같이 읽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책을 읽으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문구들도 있고</p> |

| | <p>와닿지 않은 문구들도 있었기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내가 삶을 많이 살지 않아서 잘 모르는구나’하며 넘겨짚기도 했다. 그러니, 친구들에게 이 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조용히 공감했다.</p> <p>북클럽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나는 요조님의 이 책을 두고두고 꺼내볼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었다. 문득, 그때면 삶의 지평이 조금 더 열린채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니 같이 읽은 친구들이 함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니까. 요조 작가님의 자기애 넘치는 글도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소감을 마친다.</p> | | | | | | | | |
|---|--|--|----|------|-----|----------------|--|-----|--|
| <p>실천 및 실천 소감문 (책 연계 활동: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100문 100답 적어보기)</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78 745 622 801">이름</th> <th data-bbox="622 745 981 801">실천</th> <th data-bbox="981 745 1482 801">실천소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801 622 1563">김○○</td> <td data-bbox="622 801 981 1563" rowspan="2">100문 100답 작성하기</td> <td data-bbox="981 801 1482 1563"> <p>100문 100답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 등등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문답으로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보다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게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지금껏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문답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아마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두려워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작가님처럼 나도 나를 좀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겠다.</p> </td> </tr> <tr> <td data-bbox="478 1563 622 2000">김○○</td> <td data-bbox="981 1563 1482 2000"> <p>100문 100답과 같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질문지는 지금껏 많이 접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 언니가 공유해 준 100문 100답에는 관념적인 것에 대한 나의 생각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색달랐고 그만큼 깊이도 있었다. 비록 시간이 없어서 part 1까지밖에 못했지만, 단지 몇 개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여 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p> </td> </tr> </tbody> </table>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김○○ | 100문 100답 작성하기 | <p>100문 100답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 등등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문답으로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보다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게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지금껏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문답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아마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두려워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작가님처럼 나도 나를 좀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겠다.</p> | 김○○ | <p>100문 100답과 같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질문지는 지금껏 많이 접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 언니가 공유해 준 100문 100답에는 관념적인 것에 대한 나의 생각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색달랐고 그만큼 깊이도 있었다. 비록 시간이 없어서 part 1까지밖에 못했지만, 단지 몇 개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여 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p> |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 | | | | | |
| 김○○ | 100문 100답 작성하기 | <p>100문 100답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 등등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문답으로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보다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게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지금껏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실 문답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아마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두려워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작가님처럼 나도 나를 좀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겠다.</p> | | | | | | | |
| 김○○ | | <p>100문 100답과 같이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질문지는 지금껏 많이 접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 언니가 공유해 준 100문 100답에는 관념적인 것에 대한 나의 생각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색달랐고 그만큼 깊이도 있었다. 비록 시간이 없어서 part 1까지밖에 못했지만, 단지 몇 개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여 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p> | | | | | | | |

| | | | |
|--|-----|--|---|
| | | | <p>러웠다. 특히 인생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다. 그만큼 내가 신중하게 답하고 싶은 질문이었기 때문인가 보다.</p> |
| | 강○○ | | <p>사실 100문에 50답 밖에 못 했지만 그럼에도 얻어간 게 많았다. 단순한 단어에 대해서도 나의 주관을 생각해본 적이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나는 내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며, 무엇을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가? 그래서 결국 나의 목표와 이상향은 무엇인가? 대학에 들어오고 난 뒤 백지장 상태로 복수전공과 취업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모든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비전을 정립해야 함을 깨달았다. 지금은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다.</p> |
| | 안○○ | | <p>100문 100답을 적으며, 여유로운 시간에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성찰하고 알아가면서, 나는 나의 속도를 찾을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가 정한 규칙이나 궤도에도 오르지 않고 내가 결정한 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나는 기꺼이 그 선택과 속도를 따르기로 했다. 하나하나씩 질문을 적어가면서 나를 앞과 동시에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날 수 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p> |

2023년 5월 10일

참가자대표: 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3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삶은 계란 (Life is Egg)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요일)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190000 | 이름 | 안00 | 학번 | 2020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20230000 | 이름 | 강00 | 학번 | 2023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 이름 |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p> <p>1. 책 소감문 공유하기</p> <hr/>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div> <div> <p>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저자의 상황과 비슷한 결로 살아온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기에 나는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내 편의 여성이 부드럽고 따뜻한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속으로 내내 앓아가며 책을 보았던 것 같다.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덤덤하게 풀어내며,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을 때, 나는 엄마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선의 전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만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사적으로 풀어낸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나의 과거의 '엄마'를 보았고, '엄마'가 될 나의 미래를 보았다.</p>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강○○</div> <div> <p>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책이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적다. 가족임에도 타인(내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다.</p> <p>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서는 감상을 나눌 수 없는 책이기에 말해보자면, 읽으면서 나의 외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다. 나의 어머니는 보편적인 어머니의 형태와는 달리 일을 하시고 내게 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라”고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도 내게 “여성이어도 일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게 “굳이 일을 하면서 큰 고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물론 나는 그것이 내가 힘들어 하지 않길 바라는 할머니의 애정임을 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다시 생각했다. 그 걱정은 보편적 여성상이 할머니 안에서 고착화된 결과가 아닐까. 할머니는</p> </div> </div> | | | | | | | |

| | |
|--|--|
| | <p>집안일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으로, 내게 여성상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폄하받지 않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그러한 삶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으니 나에게라도 그 삶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내 자유가 곧 할머니의 삶의 가치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 강○○의 어머니가 흔한 여성상이 아니므로 할머니가 싫어하지진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식은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온 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강○○에게 투사시키려는 의지도 있을 것 같다.)</p> <p>나는 할머니 당신에게서 배운 것으로 비로소 자립할 수 있었는데, 당신은 언제 나에게서부터 자립할 수 있을까. 구조적인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잡을 수 있는 걸까. 고통받은 사람의 되물림은 과연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진다.</p> <p>김○○ 읽으면서 반성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어머니의 원형'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여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려버리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죄책감이 엄습했다. 나 역시 어머니의 원형에 엄마를 동일시해왔기 때문이다. 엄마를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팽창한 자아를 만들어버렸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엄마를 바라며 정작 엄마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엄마는 엄마가 지금껏 지내온 삶이 있고 나 역시 나의 길이 있기에 현재는 서로 무난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다. 엄마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p> <p>김○○ 우리가 이전 세대가 본 것은 단편적인 여성상이니까. 그 궤도를 벗어나면 낙오자라로 분류되는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엄마의 엄마)가 욕을 먹을까 봐 결혼하셨다는 게 생각이 났다.</p> <p>그리고 저자가 엄마와의 대화를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의 성격은 어떻게 되돌아보게 된 것 같다. 엄마는 자유방임주의여서 나에게 신경을 덜 쓰시고, 탁구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시는 편이다. 엄마가 여성으로서 그렇게 명랑하게 지내시면서도, 내가 보통 여성들의 삶에 부합할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게 모순적이라 느꼈다.</p> <p>2. 이 책은 엄마와 딸의 공동 회고록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회고록을 써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적어내려 갔을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내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엄마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자기 삶의 저자가 되는 '사건'이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15p)</p> </div> <p>김○○</p> |
|--|--|

| | |
|-----|--|
| | <p>아버지에 존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엄마한테는 남편인 우리 아빠는 우리집의 기둥 같은 존재였고, 동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빠는 군인이셨는데, 진급 시즌에 많이 예민해지셔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힘들었다. 엄마가 우리를 낳기 전부터 쓰셨던 일기에는 아빠가 어떠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엄마와 나의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집 안의 아버지 문제부터 시작하여, 엄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엄마와의 관계는 정말 친구 같고 편안한데,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내가 미운 소리만 했던 기억이 있다. 엄마가 어떻게 느낄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회고록을 써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p> |
| 김○○ | <p>엄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과거나, 힘들다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나마 딱 한 번 내가 친할머니에 대해 물었을 때, 시댁에 있을 당시 엄청 고생을 했다는 대답뿐이다.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엄청 울었다고 했던 것이 생각난다. 엄마가 나로 인해 포기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p> |
| 강○○ | <p>나의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온 분이다. 어머니는 '강○○ 엄마'라는 호칭에 종속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잃어버리신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회고록도 서로의 애정과 가치관에 대한 것 정도만 쓰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나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아둔 것들을 말할 필요가 적다.</p> <p>다만, 어머니께서 과묵한 성격이셨다면 과연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땠을지 상상하게 된다. 아마 지금의 나와 아버지의 관계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집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있지만 정작 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p> |
| 안○○ | <p>엄마는 성인이 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참 입에 많이 달고 지내셨다.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펄펄 쏟아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탄하는 엄마가 잠깐이라도 어딘가에 기대어 쉬거나 고통을 함께 덜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나는 그동안 엄마에게 그 공간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나 자신으로 살기" 이전에 살아내면서 견뎌야했던 수많은 상처들을 참고 지내왔다. 나는 그것을 어렵듯이 알면서도 나의 시선에서 엄마를 이해하려고만 했었다. 내가 엄마와 공동 회고록을 쓴다면 기대지 못했던 그 아픔을 덜기 위해,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을 것 같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줘서 고맙다고, 보란듯이 귀여운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그 어떤 영웅보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하라며 말이다.</p> |

3.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때때로 성차별주의자와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자처럼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거나, 성차별주의자가 된 경험이 있나요?

오랫동안 '성차별주의'는 나의 모국어였다. 모국어라는 말인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별개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출된다는 점에서, 그 언어를 버린 뒤에도 나의 정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세계에서 가부장적 관습을 익히며 자란 나에게 성차별주의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드러나는 나의 일부였다(...). 성차별적 환경에서 성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왜 성차별주의자였는가?'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익숙한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는가?'이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77-79p)

| | |
|-----|---|
| 김○○ | 엄마가 당연하게 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어릴 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흔히 말하던 '전업주부'의 삶을 사실 때. 가사노동은 온전히 엄마 영역이었다. 그때 엄마가 뭔가 제대로 날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잠시 나를 두고 밖에 나가면 엄청 나게 툭툭거렸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내가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집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고, 이제는 가족들 다 같이 가사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나도 한때는 엄마를 어떤 어머니라는 역할에 가둬두려고 했었다는 걸 깨달아서 조금 부끄럽다. |
| 김○○ | 초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가 여자애들밖에 없었던 남자인 친구를 선생님의 부탁으로 남자애들과 친구가 되게끔 도와준 기억이 있다. 그 아이가 나와 같은 여자애들 사이에서 더 편하게 웃고 놀면서 정작 남자 무리에는 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재는 남자인데 이렇게 여자애들 사이에서만 놀아도 괜찮고 편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성차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
| 강○○ |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 한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가정에서 자주 들었다. 그런데 매체를 보고, 대학교를 다니게 되니 내게 없었던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최근의 고민은 이렇하다. '어디를 보든 상당수의 여자애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나도 해야 하는 걸까?' 아름다움을 좇아야 하는지 내가 편한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의 사이에서 자꾸 갈팡질팡하게 된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화장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즐겁게 놀다가 대학교에 올라오니 나만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까지 느껴진다. 나의 걸모습을 꾸미는 것은 자기관리의 일부일까? 편함을 무릅쓰고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
| 안○○ | 나는 가정의 '며느리'로서 겪어야 했던 엄마의 수모를 무시하며 지내온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다보니, 할머니와도 애착관계가 있는 나로서는 할머니의 입장과 엄마의 입장 모두 |

| | |
|---------------|---|
| | <p>가 이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성차별이라는 것은 엄마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후로 할머니를 불편해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머니와 거리를 두는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가거나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를 더 챙겨주거나 할머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p> |
| <p>활동 소감문</p> | <p>김○○ 엄마가 올해 들어 아프셨는데 그게 우리 때문인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했었다. 근데 오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라서 참아야 했던 것들이 떠올라 마음이 힘들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어떠한 폭력에 가담했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랐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는 엄마들이 생각이 났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다. 엄마를 위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한 시점 같다.</p> <p>김○○ 나는 고등학생일 때까지 페미니즘에 큰 관심이 없었다. 여성의 삶,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여태껏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오고, 또 어떠한 불가항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니 상상 또한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여성으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영향이라고는 해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다그치게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담함에 휩싸였다. 그동안 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회가 만들어놓은 '어머니 원형'에 사로잡혀 그 프레임으로 '인간 이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라는 역할로 불리기 시작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별 생각 없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스스로 자신을 눌러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마저 무뎠을까. 무뎠지는 삶이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시대 분위기와 그 안에서 살아온 여성들을 생각하면 명치에 불구덩이를 삼킨 듯 답답하다. 책에 쓰여진 작가 어머니의 회고록에서 보았듯이 작가의 어머니도 그저 시대에 무력하게 휩쓸린, 단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모범생이었을 뿐인데. 나와 같은 사람인데. 2023년 현재는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시선들이 표면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여성의 생을 조명하며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들이 인간으로서 위로받는 방식이 되기를.</p> <p>강○○ 이번 북클럽에서는 모두가 울었다. 한 명이 우니까 다른 사람들도</p> |

| | <p>다같이 주룩주룩 울었다. 그게 조금 웃기고 좋은 경험이었다.</p> <p>가족을 떠올리면 어쩐지 눈물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깊게 생각하기를 멈춘다. 외면하고 싶은 부채감과 채무감이 언제나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모양이다. 어떤 문제를 인지하는 시간은 긴데, 그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북클럽은 특히 더 몽클했던 것 같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울음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가 소중한 것이다.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 가볍게 가족에 대한 한탄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가정사는 어떤 마음준비 없이는 쉽게 꺼내기가 어렵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아는 곳이 곧 나의 세계. 비슷한 듯 다른 가정 이야기에 나는 내 세계가 확장된 기분을 느꼈다. 또한 나는 완전히 보편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다. 다르지만 우리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더 배워보고,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안○○ 친구들의 가정사를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가정이 있지만 다정하고 따뜻한 이 친구들에게 누구보다도 잔혹한 시련을 준 것에 대해 한탄하며 조용히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속으로 그 울음을 삼키려 노력했던 것 같다. 특히 김○○이와 김○○이가 가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을 때, 나는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엄마'라는 존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시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시선을 보면서,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세상이 되지 못할까 싶은 한탄을 보이기도 했다.</p> <p>그 어느때보다도 말을 아끼고 친구들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충분한 사람임에도 여전히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서로 묵묵히 바라보며 응원하게 되었다. 이번 회차를 통해 함께 한 친구들의 마음 속 사정을 더 이해하고, 나의 과거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p> | | | | | | |
|--|--|--|----|------|-----|------------------|--|
| <p>실천 및 실천 소감문 (책 연계 활동: 가정에 있는 '여성'에게 사랑과 감사 표현하기)</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78 1541 598 1601">이름</th> <th data-bbox="598 1541 869 1601">실천</th> <th data-bbox="869 1541 1484 1601">실천소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1601 598 1998">김○○</td> <td data-bbox="598 1601 869 1998">엄마와 한 시간 이상 통화하기</td> <td data-bbox="869 1601 1484 1998">엄마에게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통화하기로 바꿨다. 평소에도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탁하는 것이 통화의 주 내용이였다.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거 같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td> </tr> </tbody> </table>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김○○ | 엄마와 한 시간 이상 통화하기 | 엄마에게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통화하기로 바꿨다. 평소에도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탁하는 것이 통화의 주 내용이였다.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거 같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 |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 | | | |
| 김○○ | 엄마와 한 시간 이상 통화하기 | 엄마에게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통화하기로 바꿨다. 평소에도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탁하는 것이 통화의 주 내용이였다.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거 같다.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 | | | | | |

| | | |
|-----|------------------------|--|
| | | <p>야기도 나누고, 엄마의 고민을 함께 의논도 해보았다. 엄마가 나를 예전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까지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길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p> |
| 김○○ | 일주일 동안 엄마께 매일, 먼저 전화걸기 | <p>본가에 내려간 2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거는 실천을 했다. 시험 기간이 끝난 후 더 많이 쏟아지는 과제와 팀플에 허덕이고 사라진 여유 때문에 엄마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 지금 전화를 걸지 않으면 엄마가 분명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를 챙기기도 바쁘고 힘든 상황이 상충되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실천 첫날에 먼저 전화를 걸자 엄마는 아주 기쁜 목소리로 내 전화를 받았다. 웬일이야 우리 딸, 이라는 말과 함께. 그러한 엄마의 반응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엄마에 대한 부채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 먼저 전화를 걸다보니, 엄마가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고 나 역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다.</p> |
| 강○○ | 할머니와 포옹하기 | <p>대학에 들어온 뒤, 본가에 돌아올 때마다, 기숙사로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포옹을 해주신다. 원래부터도 포옹을 자주 해주시는 분이셨지만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는 부쩍 빈도가 늘었다. 그런데 내가 할머니와 포옹을 한 기억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실천을 '할머니와 포옹하기'로 결정했다.</p> <p>본가에 돌아가자마자 내가 두 팔을 벌리며 할머니께 다가갔다.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하는 일이었다. 생소할 만도 한데, 할머니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나를 마주 안아주셨다. 어머니께서 늘 나를 안아주셨던 것은 사실 할머니에게서 비롯된 행동일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양 팔을 마주 벌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p> |
| 안○○ | 엄마와 수다떨기 | <p>주말에 집에 간 사이에 엄마와 대화를 해보</p> |

| | |
|--|---|
| | <p>려고 했지만, 개인과제와 엄마의 개인일정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 대화를 하지 못했다. 대신에 엄마의 바쁜 사정을 이해하고 엄마가 온전히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묵묵히 설거지와 청소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보다 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기숙사로 돌아오고 나서 엄마랑 같이 싸우는 꿈을 꿔다. 그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 더욱더 엄마가 보고 싶었다. 집에서 문득 동생이 이런 말을 한게 생각난다.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존경해. 살면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런 학과가 있다면 우리 엄마는 1등이었을거야." 나는 동생의 말에 일부 공감했다.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 삶을 내던져야 했던 엄마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께옥 안아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p> |
|--|---|

2023년 5월 17일

참가자대표: 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4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삶은 계란 (Life is Egg)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190000 | 이름 | 안00 | 학번 | 2020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20230000 | 이름 | 강00 | 학번 | 2023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 이름 |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p> <p>1. 책 소감문 공유하기</p>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div> <div style="width: 85%;"> <p>책을 읽으며 뺏속까지 사회학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책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끝에는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넘어, 타인에 대해 '실감'하고 우리의 삶의 일부 또한 타자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아닐까. 나와 타자를 둘러싼 벽을 허물고 다가가며, 타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기반으로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어떤 대상에 대한 동경일 수도 있고, 죽음을 자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책에서는 그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내었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단어까지 맥락을 짚 이해하며 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니,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답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서 사는 것은 일단 아니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타자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던 책이기도 하다.</p> </div> </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강○○</div> <div style="width: 85%;"> <p>인간의 기준은 무엇일까? 책에서도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끊임없이 회의하고 생각할 것, 치열하게 질문할 것,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것. 관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안정감을 느끼며 멈춘 고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그리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다. 첫째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고향에 대한 것이다. (...) 내가 개인적 또는 학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고향'이라는 개념이다. 이 '고향'이라는 메타포는 디아스포라,</p> </div> </div> | | | | | | | |

| | |
|--|--|
| | <p>소속성(belonging), 진정성, 소외와 일치, 인간됨의 의미 등과 같이 매우 복합적인 다른 개념들과도 연관되어 있다.</p> <p>(...) 진정한 의미와 행복감이 충족되고, 여타의 소외를 넘어서서 내가 나와 '일치성'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한 곳. 이러한 삶이 가능한 상태가 '고향'이다.</p> <p>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험이 있다. 나는 태어난 직후로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단 한번도 연남동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사를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는 연남동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겪었다. 그리고 변화한 지금의 연남동을 보면 가끔씩 씁쓸해진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친구도 많았고, 철물점과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등이 심심찮게 보였는데 지금은 카페와 소품샵, 식당과 같은 장소만 보인다. 친구들도 모두 이사를 가서 나만 남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속에서 나만 변화하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이제는 없는, '과거의 연남동'이 나의 고향인 걸까.</p> <p>두 번째는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 1994)>에서 수감자들이 아리아를 듣는 장면에 대한 언급이다.</p> <p>사방 철망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채 교도소 생활에 길든 사람들,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며 쳇바퀴 도는 삶에 적응해 살던 사람들이 한없이 높고 길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아리아를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불현 듯 깨닫는다.</p> <p>수감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규칙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압박하고 제한하는, 그야말로 인간소외 현상 아닌가. 그리고 나 역시 현대 사회의 규칙에 의지하고 있는 인간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돌이켜 보게 됐다.</p> <hr/> <p>김○○ 사회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어쩌면 자신의 탓만 있는 것이 아닌, 외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학은 한 인간의 내면을 동질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외부의 변화를 모색하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사회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개개인을 바라보는, 상냥한 학문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과거에는 냉혈한 사회를 보면서 그 포부와 이상이 꺾이고,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쁘다는 회의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수록 연대하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p> |
|--|--|

| | |
|--|---|
| | <p>살다보면 인간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문득 우리 삶에서 인간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지만 인간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류은숙 선생님의 말이 크게 와닿았다.</p> <p>가령 여기 나오는 이명박 밥상을 세 번 차려준 이야기를 통해 성공 신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열심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서로의 굳은 살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생각이 들었다.</p> |
| <p>2.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p> | |
| <p>김○○</p> | <p>'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클럽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동안 행복한 가정처럼 우리라는 집단에 대한 '결핍'도 있었고, 혹은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지'도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간'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간으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p> <p>언어학자 소쉬르에 의하면, 관계 즉 '차이'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바라보게 된다. 이런 차이를 결국 느끼려면, 필수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타인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더 나아가 그 타인과 나의 관계가 합쳐진 우리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나의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하며 살아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
| <p>안○○</p> | <p>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p> <p><i>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타계한 김근태 전 의원은 민청련 의장 당시 고문당했을 때 고문 기술자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자녀들 교육 문제로 고민하더라고 술회한 적이 있다. 자녀 교육을 고민하는 고문 기술자들, 그들은 보통 사람인가, 괴물인가?</i></p> <p>그리고 우리는 대개 이런 사람을 '인간도 아닌 것'이라며 자신과 그들을 구분한다. 따라서 종족으로서의 인간과 우리가 납득하는 관념으로서의 인간은 다르다. 후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관계에서 '인간'의 정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기준은 이렇하다. 타인에게 강도 있는 해를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 가볍게 친구의 등을 치는 등의 가해에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위협은 주체와 객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연쇄살인마가 자신의 애인에게는 다정한 애인인 것처럼, 또는 고문</p> |
| | <p>강○○</p> |

| | |
|---------------|--|
| | <p>기술자가 자식에게는 자상한 부모인 것처럼. 그러므로 인간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p> <p>김○○ '변화'가 우리를 인간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라는 장 폴 사르트르의 말과 같이, 인간은 본질(목적, 쓸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만들어질 때부터 일련의 목적을 가진 사물은 그 용도로 태어남의 의미가 정해진다. 사물은 보통 자신의 본질로만 쓰이도록 권고된다. 의자는 엉덩이를 붙이고 편안하게 앉도록, 드라이버는 나사를 고정하도록 말이다. 그렇기에 사물은 또 다른 용도로 변화하거나 하지 않는다. 변화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준 것도 인간이며, 변화 시키는 것도 인간의 의지다. 즉 사물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사물과 다르게 끊임없이 '변화해도 되는 존재' 이다. 애초에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고, 자신의 본질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 할 수 없다.</p> <p>김○○ '연대'가 우리를 인간이 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데, 그 우리는 연대를 통해 이를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작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모두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타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러한 연대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는 연대가 우리를 인간이 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p> |
| <p>활동 소감문</p> | <p>김○○ 이 책의 165p에 인간의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 불안은 우리를 사유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번 활동도 그랬다.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사회적 이슈와 연관지어 생각해봄으로서 또 다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김○○ 책을 읽고 만나는 활동으로는 마지막이었던 만남이라 꽤나 아쉬웠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지금, 소감문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 지금껏 이 활동을 통해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읽어오며 몇 회차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선배들 그리고 친구와 많은</p> |

| | <p>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 나뉘는 성장을 이뤘다고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나는 내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희망했던 심리학과가 아닌 사회학과에 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경험하고 그렇게 배워온 나는 이제야 한 개인이 거대한 사회의 흐름 앞에서 어찌지 못하고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읽어온 4권의 책들 중 가장 사회학적 성격이 강한 이 책은, 사회학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사려 깊게 살펴주는 상냥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주변을 상냥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면 되는지 확신이 들게 해준 이 책, 그리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준 북클럽 조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p> <p>강○○ 삶에는 정답이 없으나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아직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있는 듯 하다. 나 자신의 답을 만들어내면 비로소 박탈당한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향을 발견하게 될까. 아직은 방향의 기간에 놓여있다. 긴 방향을 일단은 흔쾌히 불안해하며 즐기고 싶다.</p> <p>안○○ 살아가면서 수 없이 들었던 질문이 있다면, 그건 '나는 무엇인가?'와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생애 그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클럽 활동을 통해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예를 들어 가족, 친구, 선후배 등)들을 성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애정의 방법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p> <p>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인상깊었던 말이 있다. 사랑도, 애정도 본인이 겪고 느껴본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인간답게' 살기 어려워 한다면, 그 역시 관계를 맺고 경험해온 삶 속에서 그 경험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며, 반대로 내가 인간답게 살아왔다고 느낀다면 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부차적인 즐거움과 행복감이 공존했을거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p> <p>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보다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클럽을 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그 경험에 대한 부재로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했듯이,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p> | | | | | | |
|--|---|--|----|------|-----|---------------------|--|
| <p>실천 및 실천 소감문 (책 연계 활동: 우리를 인간이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 '사회적인 것'을</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78 1792 598 1848">이름</th> <th data-bbox="598 1792 981 1848">실천</th> <th data-bbox="981 1792 1482 1848">실천소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1848 598 2000">김○○</td> <td data-bbox="598 1848 981 2000">청년 포럼 참여하기(키워드 공론장)</td> <td data-bbox="981 1848 1482 2000">사회적 이슈 중 관심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청년 포럼을 들으며, 나는 어떤</td> </tr> </tbody> </table>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김○○ | 청년 포럼 참여하기(키워드 공론장) | 사회적 이슈 중 관심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청년 포럼을 들으며, 나는 어떤 |
| 이름 | 실천 | 실천소감 | | | | | |
| 김○○ | 청년 포럼 참여하기(키워드 공론장) | 사회적 이슈 중 관심사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청년 포럼을 들으며, 나는 어떤 | | | | | |

| | | | |
|---------------|------------|-------------------------|---|
| <p>들여다보자)</p> | | | <p>청년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단순히 청년이라는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매우 뜻깊었다. 현재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 기사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 <p>김○○</p> | <p>가족과 관련된 기사 조사하기</p> | <p>실천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이 책에서 조명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도 그곳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고등학생 당시 엄마와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엄마에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불편해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기사를 조사해 보았다.</p> <p>가족 갈등의 불씨로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맞벌이 부부는 증가했지만 양성평등 의식 미흡, 성인 자녀의 만혼화로 부모 의존도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맞게 된 준비되지 않은 노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회 부족으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살면서 가족 간 대화 시간 부족 등이 있다고 한다. 전이라면 엄마를 향한 내 감정만 채우기 급급하여 엄마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에 대한 미움은 많이 사그라들었다. 엄마도 그 당시 사회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나를 챙기기 어려웠을 테니까. 불행은 이미 일어났고 현재를 사는 나는 상처를 지고 천천히 나만의 속도를 찾아 한 발짝씩 걸어나갈 수밖에 없다. 초연해지는 마음이 익숙지는 않다. 그럼에도, 살아가고 싶다.</p> |
| | <p>강○○</p> | <p>내가 모르는 사회의 이면 조사</p> | <p>사람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삶</p> |

| | | |
|--|--------------------------------|---|
| | <p>사하기</p> | <p>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사회의 이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내가 대학을 다닌다는 것부터가 '다수성'에 속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몇몇 소수의 삶은 내가 겪어보지조차 못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KBS 시사 영상을 보았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족 등 최소 한 명과는 교류를 하게 되지 않나. 사람이 보고 싶으면 밖에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바쁘지도 않은데 계절감각까지 없을 수 있나.</p> <p>그런데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다. 무려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시기는 IMF,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깨달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에 가깝구나. 그리고 인터뷰를 들으며 우리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이 하는 고민은 나도 하는 고민이었다.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함께 걸을 때 보폭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스몰토크는 어떤 건지. 어떤 가능성에서는 나 역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와 그들의 간격을 좁혔다. 그 생각에서부터 진정한 인식이 시작되는 것 같다.</p> |
| | <p>안○○ '공연의 사회학' 읽고 후기 남기기</p> | <p>시간 상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공연의 사회학'을 읽으며 현대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회학적 매커니즘을 파악하게 되었다. 1장, '민주주의, 한국은 어떤 민주주의 나라인가'에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문화적 코드를 분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위치</p> |

| | | |
|--|--|---|
| | | <p>를 '성스러운 것'의 코드로 해석한 대목이었다. 박근혜의 상황은 그 성스러운 위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며,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었다.</p> <p>그 외에도 이런 맥락으로 서술된 책을 보면서 나는 '우리'를 구성하는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타자의 실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도서였다.</p> |
|--|--|---|

2023년 5월 26일

참가자대표: 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5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삶은 계란 (Life is Egg)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31일(수요일)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190000 | 이름 | 안00 | 학번 | 2020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20230000 | 이름 | 강00 | 학번 | 2023000 | 이름 | 김00 |
| | 학번 | | 이름 |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 이름 | | | | | |
|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p>[진행 도서] 못 다한 이야기 나누기: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p> <p>1. 우리 집은 각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집 안의 어디에나 있어야 했고 집 안의 아무에게나 호출되어야 했던 엄마에게 사적 영역이 있었던가?)</p> | | | | | | | |
| | 안○○ | <p>이사를 8~9번 다니면서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나의 사적 영역은 특이하게 존재한다. 나는 나의 침대 위를 사적 영역이라 생각하고, 엄마도 침대 위 정도가 사적 영역인 것 같다. 3층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나에게 공간이 나뉘었지만 엄마는 그 당시에도 자신의 방이 없었다. 아빠는 잠을 자는 안방 외에 3층에 작게 서재를 마련했지만 엄마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다. 지금은 나도 이사를 하면서 나의 방이 없는 상태다. 방 하나가 아니라, 침대 같은 영역을 통해 나의 사적 영역을 찾게된 것 같다. 하지만 엄마에게 사적영역이라고 하면, 예전에도 지금도 안방 침대가 유일한 것 같다. 엄마가 더 넓은 공간을 원하지만서도 침대에 있는데, 안방 침대가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p> | | | | | | |
| 강○○ | <p>사실 이 질문은 인용한 책의 대목을 보자마자 '집이 없어'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나온 박주완 에피소드가 떠올랐기 때문에 만들어 온 질문이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독백이 나온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방이 있지만, 정작 집에 제일 오래 있는 엄마에게는 방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많은 가정이 어머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돌아와 생각해보자, 우리의 집은 어떠한가?</p> <p>우리 집은 5인 가족이 한 집에 사는 형태다. 집에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방 하나는 창고, 다른 하나는 오빠 방, 나머지는 나와 엄마. 그리고 거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다. 오빠를 제외하면 우리 집에는 완전한 개인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p> | | | | | | | |

| | |
|--|--|
| | <p>부분의 시간을 타인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공간에 나 외의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기숙사에 적응하기 쉬웠지만, 정작 집에 왔을 때는 누군가가 내 시간에 함부로 침범하는 게 싫어서 카페나 도서관으로 도피하는 일이 잦다.</p> <p>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나의 가정은 애매한 지점에 놓여있다. 엄마와 같이 살다보니, 작은 방에 컴퓨터 책상이 있고, 자는 큰 방이 있다. 두 공간 모두 엄마와 같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혼자 많이 쓰는 공간이 있어서 완전히 공유하거나 독립된 공간의 분리는 없는 상태다. 엄마도 많은 가족 구성원과 부대끼면서 살아왔지만 사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둘 다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p> <p>김○○ 2020년도까지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상태. 내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집에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느꼈다. 춘천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집에 가면, 오빠 방과 안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다. 엄마에게도 항상 사적 영역이 없었다. 안방으로 아빠와 같이 쓰거나, 지금은 나와 같이 쓰고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머니도 밖에서 탁구 등의 활동을 하시면서 그 욕구를 해소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 경제 사정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면서 느낀 공간의 소실이 있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면서 쌓인 짐들을 정리 중인데, 어머니가 '어디까지 버려야 우리의 공간이 생길까'에 대해 고민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았다.</p> <p>2. 내가 남들과 다른 점, 또는 많은 사람에게 이해받기 어려운 나의 생각이나 특징이 있을까? ('평범하지 않음'은 '특별함'이나 '비범함'일 수도 있고 '비보편성'이나 '소수성'일 수도 있다.)</p> <p>김○○ '인터넷 중독'인 것 같다. 트위터나 SNS 계정에서 사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 얘기를 많이 전달하는 것 같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없는 편도 아니고, 굳이 거기다가 이야기 할 이유가 없는데, SNS에 글을 올리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인내심은 있으나, 자제력이 없는 편. 애매하게 끊으면 자제가 안된다.</p> <p>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트러블이 생겨도 나는 타인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다. 실제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에서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척 한다'며 앞담을 듣기도 했고, 반대로 내가 한 일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만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크게 신경쓰진 않게 된다.</p> |
|--|--|

| | |
|---|---|
| 김○○ |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냐”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 매몰되다가도, 이러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편인 것 같다. |
| 강○○ |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남들도 연애를 할 생각이 없다는 나를 의아하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끌리는 사람도 없는데 막연하게 연애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진다. 연애를 자주 하는 친구가 이에 대해 대답해주었다. 내가 원할 때 시간을 쏟고, 나의 고민과 어리광을 받아주고 때로는 설렘을 주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는 충족되는 기분을 준다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 비면 혼자 인터넷이나 만화를 보고, 고민은 다른 이에게 털어놓기 전에 먼저 해결을 하는 편이라 여전히 친구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납득은 가능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느꼈다. 다만 이 대화가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기 보다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사고방식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성향을 설도하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애를 향한 갈망이 어떤 때에는 필수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나는 간간히 씁쓸함을 느낀다. |
| 안○○ | 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난 널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질문처럼 전자와 후자(비범함과 소수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도 평범한 걸 추구하다가도 평범하지 않길 바라는 모순적인 인간으로서, 안가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혼자만의 탐닉만 있을 뿐이다. |
| 3. 우리는 언제 말하지 않는가? - 그럼에도 말을 꺼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나의 언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언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p)</p> </div> | |
| 김○○ |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욕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망설여질 때가 있다. 과거에 나도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 단어를 변형하여 ‘헬린이’, ‘취린이’ ‘잼민이’ 등의 단어를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단어 어원을 알게 되니 적절한 단어가 아님을 깨 |

| | |
|-----|---|
| | <p>달았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조롱과 비난, 혐오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p> |
| 김○○ | <p>상대방의 지위. 나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1 사석보다 공식이 더 어렵다. 말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규범 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리적 지배’라는 공식 용어 대신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교수님이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신 건 교수님의 의도된 설정일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합리화해보기도 했다. 공식인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나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p> <p>(+안○○: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당 발언을 설명하는 권위자와 그에 상충하는 나 자신의 가치. 사회학과는 권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헤게모니 관점에서 ‘납득이 되는 것 같은’ 그 권력에 편승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다. 이런 권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교묘하고 애매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포장한 혐오에 대한 대응으로 흘러드는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p> |
| 강○○ | <p>여중, 여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연락하는 남자애들도 없다. 장장 6년만에 동갑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또래 남자들의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만 학습한 상태에서 그 실재를 직접 대면하게 된 탓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일지 고민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남자 동기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 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면 나를 예민하게 느끼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동아리 친구와 선배가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을 때 상대방도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센스있게 지적을 하고, 상대방도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편견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온건한 대화로 풀어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
| 안○○ | <p>‘한남’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실제로 나도 이 단어를 알고 사용했적이 있었지만, 나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남’이 시사하는 의미를 성찰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인데, 한남이라는 단어는 조롱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즉, 페미니즘에서 어떠한 맥락을 통해 탄생했는지를 생각하니, 생각보다 편잡했다는 안일함으로 사용하다가 나 자신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이는 내가 생각했던 페미니즘의 목적과 변질됨. 여성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한 미러링 단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태도가 누군가를 적대</p> |

시하는 포지션처럼 해석될 것 같다.

4. 엄마의 잘못이 아닌 일로 엄마에게 화냈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김○○

중학생 때 엄마가 집을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밤 늦게 들어 온다고 과하게 타박한 아빠가 아닌, 엄마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아빠보다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 즉 아빠의 의처증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때아빠에게 맞서 싸우기도 했고, 엄마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늘 상기시켰다. 때때로 마찰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잘 풀어나갔다.

김○○

어머니가 새 직장을 구하고 일에 적응하기까지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로 약 1년 동안 삼시세끼를 홀로 해결하고 지냈던 적이 있다.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직장에 적응하는 상황을 응원 했지만, 한 편으로는 방임된다는 생각과 외로움에 서러웠던 것 같다. 또한 그 당시 내 삶의 모습은 '생존'에 가까웠기 때문에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까지도 부모를 향한 감정이 혼재되어 미묘하다. 엄마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런데 엄마가 나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과연 엄마 혼자만의 문제일까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못한 것은 엄마가 자라온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강○○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일로 화냈던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다. 일단 내가 발화점이 높은 편이고, 어머니는 언제나 내가 차분하게 진정할 수 있도록 달래거나 기다려주신다. 다만 이런 일이 어렸을 적에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동작업치료사로, 발달장애아동이나 자폐아동 등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 일을 하던 도중 해당 아동들과 함께 캠프를 가게 된 날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는 엄마랑 같이 가는 거지만,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다.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이 친구들도 엄마를 보고 싶어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나를 엄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못하니, 흥길동인가.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는 했지만, 도저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캠프를 진행하는 내내 선생님이 아닌 "엄마"라고 불렀던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소심하게 반항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

| | |
|--|---|
| | <p>어머니에게 화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늘 내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뒤 내게 양해를 구하셔서, 화내기 애매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늘 걱정적인 표현이 어렵다.</p> <p>옛날에 피아노를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봤던 게 한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게 시작이었다. 감정이 폭발한 나는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삶을 동경하며 못 해봤던 것의 한을 부모님께 쏟아낸 적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을 하셨다.</p> <p>“미안해”.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잘못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하더라도 엄마는 나를 안 떠날거야.’라는 생각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내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그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지만, 때로는 나의 안일함과 부족함이 그들을 상처입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도 아빠도 그때 자신이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길러주셨지만, 그런 생각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궤도와 규정, 혹은 이상에 의해 나의 삶이 점점 도태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랑을 놓치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p> |
| <p>5. 여성으로서의 삶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다면?</p> | |
| 김○○ | <p>사랑에 매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주는 동반자와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내가 관심있고 흥미있어 하는 학문에 대해 존중해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동료를 찾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p> |
| 김○○ | <p>나는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정의 형태를 단정지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다면 입양을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와 살 수도 있다.</p> |
| 강○○ | <p>옛날에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인생이 삶의 공식과 다름 없었다. 나는 누군가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지만, 누군가를 챙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어머니의 영향 같다. 어머니께서는 늘 나와 오빠를 보면서 '내게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셨다. 그 말을 듣고 자란 탓에 내게 막연한 동경이 생긴 것 아닐까. 나는 혼자 있으면 내 끼니를 잘 챙겨먹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는 나와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다. 그 친구는 나보다도 끼니를 스스로 잘 챙겨먹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 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힘써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도 내 밥을 챙기게 된다. 내가 남을 챙기는 것이 곧 나를 챙기는 일</p> |

| | |
|---------------|--|
| | <p>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책임질 대상이 있으면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p> <p>안○○ '이쯤 나이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된, 사회의 규정된 삶. 그 궤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를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구축해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p> |
| <p>활동 소감문</p> | <p>김○○ 이번 학기를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그런데도 북클럽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북클럽을 통해 내가 힘들어했던 것들을 타인들과 공유하고, 또 책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책을 통해 성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기쁘다.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정작 나는 잘 못하고 학우들이 많이 힘써준 것 같다. 미안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p> <p>김○○ 분명 활동 당일에는 시간이 삭제되듯 빨리 갔는데, 지금까지 정작 5번을 만났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어쩐지 놀랍다. 보통의 한 달은 아주 빨리 지나가는데, 심비우스 북클럽을 진행한 한 달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p> <p>대학에 오고 난 뒤, 정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 깊게 돌아보는 시간은 처음이었다. 다시금 진로와 나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정신적 방향을 느끼던 나를, 그런 스스로를 훑아보는 시간. 참 길었다. 각기 다른 4권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길었고, 고민이 길었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재정립해가는 과정이 초반에는 분명 막막했더라. 하지만 마지막 5주차의 만남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알았고, 이제 그 길을 모색하며 달음박질칠 일을 기대한다.</p> <p>김○○ 김○○이 여기에 당도하기까지 많은 개인적 이야기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어준 우리 북클럽 멤버들께 후련히 감사를 표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돈되지 못했을 것이다.</p> <p>사실 아직 갈 길이 멀다. 방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잔여물의 존재를 느끼고 여전히 사람이 어렵다. 그럼에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 많은 것이 나아졌다. 7살의 김○○, 초등학교 4학년의 김○○, 고등학교 2학년의 김○○... 내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그들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기분이다.</p> <p>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석에서 다시 만나 또 다른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교 1학년, 이 기억은 오</p> |

| | |
|--|--|
| | <p>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해 준 북클럽 멤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말을 마친다.</p> <p>강○○ 이번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말하고 싶다는 것이다. 책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고,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다 보니 점차 나의 감상과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어졌다. 함께 읽고 싶은 책도 떠오른다. 신형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도 같이 읽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제각기 다른 아픔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은 일상 중에서 쉽사리 꺼내기가 어렵다. 분명히 한번쯤은 꺼내고 들여다보며 치유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방치하거나 외면하기 일쑤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웹툰에 있던 문장을 떠올린다. '상처는 나으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치유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아간다.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까닭에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반복되는 이야기여도 좋으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강박이나 외로움,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에게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p> <p>성향이 비슷함과 동시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닫는다. 매번 감사했고, 바쁜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과 언어를 나누어 준 우리 북클럽 멤버들을 나는 늘 응원할 것 같다. 이 따뜻한 온도로 우리의 희망과 고민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을 줄인다.</p> <p>안○○ 마지막으로 북클럽을 활동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나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며 울기도 했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며 웃기도 했으며, 나의 미래를 떠올리며 설레어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힘을 빼고, 타인을 실감하며 동시에 나를 더 없이 사랑하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다. 항상 북클럽이 끝날 때, 친구들과 나눈 얘기가 생각난다. "우리 벌써 활동 시간 끝났어?".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번 북클럽 활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쳐하는 나에게 활력을 제공한 활동이었다.</p> <p>특히나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이타적인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나의 사람들이, 보란 듯이 이 사회를 아름답고 당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동안 외로웠을 김○○이가 앞으로는 더 없이 소중한 많은 인연들을 만나며 행복하게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타인을 경청하고 공감하느라 정작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본인에게 솔직한 사랑을 주지</p> |
|--|--|

| | |
|--|--|
| | <p>못했던 강○○의 어리광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나의 지나친 해석이 아니길...) 무엇보다도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었던 김○○이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이런 소망을 품에 안고, 그리고 북클럽이라는 활동을 넘어선 교류와 함께한 그 '시간'을 '그땐 좋았지'하는 행복한 기억의 조각으로 남기며 살아갈 것 같다. 말도 장황하게 하고, 방향도 많이 했던 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경청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활동 소감을 마무리 해본다.</p> |
|--|--|

2023년 5월 31일

참가자대표: 김○○